

『육아지원기관 평가의 과제와 전망』에 관한 좌담회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는 『육아지원기관 평가의 과제와 전망』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유치원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운영 평가와 과제」라는 2개의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한 바 있다. 이에 『육아정책포럼』에서는 동 정책론회의 발제자와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마련하였다.

사 회: 서문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참석자: 유희정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곽노의 서울교대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이완정 인하대 소비자아동학전공 교수

장명림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김영실 원광대 유아교육과 교수

하숙자 사람어린이집 시설장

사 회: 참여정부에 들어서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투자와 발전은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 유아교육·보육 예산,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교육비·보육비 지원 비율은 2~5배까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과 함께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육아지원기관의 질적인 수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육아지원기관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현재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의 질적 수준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장명림: 유치원의 경우에는 시설, 교사, 교육과정, 교육환경 등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보건법, 재무회계규칙 등 법적 규정을 적용하여 기본적인 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장학지도는 유치원의 질을 관리·유지하는 중요한 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희정: 보육시설 역시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영유아보육법 등 법에 기초하여 매년 1회 이상

행·재정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서비스 수준관리를 위해서는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 회: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에 포함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희정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유희정: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2000년도를 전후하여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높이자는 문제의식이 부각되면서 서비스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의 하나로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일정한 지표를 기준으로 보육현장을 점검하는 제도로, 보육시설들은 자발적인 참여와 자체점검 과정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정비·보완하게 되며, 현장 관찰 및 전문적인 평가를 거치면서 보육시설의 현재 운영 수준을 점검해보는 과정입니다.

사 회: OECD 국가 등 선진국에서는 영유아 보육이나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평가인증을 실시하는 나라를 소개해 주시지요.

장명림: 외국에서는 시설조건, 교사자격, 교육과정, 관리·감독, 평가 등에 관련한 정책이나 법적 규정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평가와 관련해서 보면, 미국은 민간단체인 전미유아교육협회(NAEYC)에서 제시한 질적 기준에 따른 자발적인 프로그램 평가인증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국가수준의 교육기준청(OFSTED)에서 정부재정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스웨덴도 국립교육원(Skolverket)에서 유아교육기관 대해서 초·중등교육기관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유아교육의 질 제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희정: 장명림 박사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이 있고 이외에 호주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공통적으로 보육 시설이 민간 위주라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증제도는 민간단체가 1985년부터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지요. 호주 보육시설 인증제도는 미국의 인증제도에 기초를 두고 발전하였는데, 가장 큰 차이는 국가기구인 국립 보육인증위원회(NCAC)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인증제도를 통과하여야만 정부

의 재정지원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 회: 보육과 유아교육 질 관리 방식이 그 나라의 육아지원기 관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군요. 우리나라는 보육시설은 평가가 이미 실시되고 있고, 유치원평 가는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평 가가 왜 필요합니까?



장명림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장명림: 유치원 장학지도가 각 시·도교육감의 자치 권한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고, 시·도 별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관계로, 국가 수준의 종합적 유치원 질 관리 체제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국가 수준에서 유치원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치원의 운영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유치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강화 및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수준의 유치원 평가를 통해 유아교육 현장의 실태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학부모가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곽노의: 유치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평가제도는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도시의 경우 1명의 장학사가 100개 이상의 유치원을 담당하고 있어 실제로 충실히 장학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이 학부모들의 편향된 요구와 원아 모집을 의식한 유치원의 보여주기식 행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수 유치원 운영의 기준이 ‘학부모의 편향되고 무리한 요구’가 아닌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유아교육전문가가 인정하고 합의한 기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유치원 평가 지표가 하루 빨리 개발되어야 합니다.

사 회: 보육시설 평가의 필요성은 어떻습니까?

유희정: 기존의 보육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하여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이 증가되면서 이제 모든 가정의 자녀가 보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보육이 확대되자 수요자들은 보육시설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고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으며, 모든 보육시설에서 일정수준이 보장된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재정지원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자 재정투자의 효과를 검증하고 싶어하며, 보육재정 지원으로 인

하여 서비스의 수준이 과연 높아졌는지 평가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완정: 사실, 그간 보육이나 양육지원 시스템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교육제도와 달리 국가적 차원의 제도 체계로 간주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영유아기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육은 가족의 사적 차원에 해당한다는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 인적자본론의 입장에서 볼 때 영유아기에 전전한 양육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가 더욱 큰 투자라는 점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 회: 유치원이나 보육시설들도 이러한 평가 필요성에 동의합니까?

유희정: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처음 도입되던 2005년도만 하여도 보육현장에서는 혼란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범운영을 거쳐 평가인증 실시 세 번째 해를 맞이하면서 이미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들 사이에서 인증참여의 효과가 폭넓게 홍보되면서 보육시설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명림: 유치원 평가는 아무래도 사립유치원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06년도 5월에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사립유치원 원장님 47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57%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과반수 이상은 동의를 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전반적인 의견은 선 재정지원, 후 평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치원 평가를 시행하기에 앞서, 평가 참여 유치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실: 장 박사님 말씀 중 과반수가 찬성을한다고 하셨는데, 43%라는 반대 비율이 높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만이 아니라 1~2학급으로 운영되는 많은 수의 공립유치원 교사들에게도 평가는 수업외의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의 평가 부담과 거부감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 회: 그러면, 보다 구체적 평가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지요. 먼저 운용체계와 절차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는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유희정: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평가인증사무국에서 주관하며, 인증신청, 시설의 자체점검, 관찰자에 의한 현장관찰, 인증결정의 4단계로 진행되며 인증절차는 1개 시설 당 9~10

개월이 소요됩니다. 평가 점수는 자체평가, 관찰 평가, 심의위원 평가 점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원정: 현재의 절차를 보면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질 관리를 온통 평가인증사무국에만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인증사무국에서 제한된 예산과 부족한 인력으로 우리사회의 보육의 질 문제를 온통 떠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력지원은 현재 보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근근이 전개되고 있는 형편인데, 조력이야말로 관련 기구와 조직들을 망라하여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이렇게 진행되어야만 보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조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곽노의: 보육시설 평가에서 자체평가 결과가 평가 점수에 반영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찰평가시 2명이 함께 하는 것으로 아는데, 관찰평가자의 수는 짹수보다는 홀수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예, 관찰자 수는 결국 비용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과정에서는 관찰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선발하여, 교육하고 관리합니까?

유희정: 현장관찰자는 3단계를 거쳐 선발되는데 1차 전형에서는 학력과 경력을 포함한 기본 자격을 점검합니다. 2차 전형은 면접(구술/논술)으로 진행되고, 2차 전형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3차 전형이 실시되는데, 3차 전형은 3박 4일간의 교육 후 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이원정: 관찰자의 선발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도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해낼 수 있도록 꾸준히 관찰자 훈련체계가 개선되어야 하며, 동시에 자질이 부족한 관찰자들은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외 초기 현장관찰 데이터의 분석을 토대로 관찰자간에 이견이 많은 내용에 대한 꾸준한 일치화 작업이 끈기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숙자: 인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찰자의 전문성, 신뢰성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 회: 앞으로 유치원 평가의 운용체계나 절차는 어떻게 추진될 예정입니까?

장명림: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 평가시스템



이원정
인하대 소비자아동학전공 교수

을 구축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유치원 평가 전반에 관한 정책 수립, 국가 공통 지표 개발 및 평가위원 연수 등을 담당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중등학교 종합평가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즉, 국가수준의 공통지표를 통하여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지표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현장 적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 회: 무엇을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는가도 핵심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지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유희정: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는 기본형이 7개영역 80개항목이며, 지표 중에는 보육실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준수, 재정 관리의 투명한 운영, 안전사고에 대한 보육시설의 책임 등이 필수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필수항목 위반 시에는 인증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원정: 인증지표의 구체적인 내용과 타당성은 주기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검토되고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증지표는 보육에 관한 최신의 이론과 연구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어야 하며, 보육 전문가들에 의해 안면타당도를 검토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표의 각 영역과 항목들은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변량의 많은 범위를 설명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또 공개되어야 합니다.

유희정: 우리나라 평가인증 2단계가 되는 2009년부터 2011년 기간에 활용될 지표의 항목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자체점검보고서와 현장관찰보고서를 분석하여 2단계에 적합한 지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 회: 유치원 평가에 대한 연구도 오래 전부터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장명림: 예, 유치원 평가에 관한 연구는 1999년 교육부 정책과제로 추진되면서부터 활성화되었습니다.

사 회: 그렇군요. 그러면 유치원 평가 지표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요?

장명림: 유치원 평가지표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유치원 평가 영역과 기준을 선정할 때에는 초·중등학교의 평가영역, 유아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가영역, 국가 유아교육 주요 정책과제와 계획, 그 외에 유아교육 질 관련 핵심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은 교육과정 편성·운

영 및 교수·학습 방법의 적절성, 시설·설비의 적합성, 교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지후생, 예산의 편성 및 운용의 합리성, 종일제 운영 등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지표의 요소와 기준 개발은 교육부에서 2007년도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실: 저는 평가지표의 역기능이 우려됩니다. 지표가 개발된다면 지표별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평가지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포함될 것인데, 이러한 방법은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접근으로 여겨지나, 프로그램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나 개선이라는 면에서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기준 적용이 엄격할 경우, 개별 유치원의 특성이 무시될 수 있고, 이 외에도 하루 정도의 짧은 관찰로는 문서화된 자료 위주의 피상적인 평가로 끝나기 쉽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유치원 질 관리를 위한 장학지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유아교육 전공 전문직의 증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 회: 미국의 경우 민간단체가 영유아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담당하고 있는데, 유치원 평가를 실시하는 민간단체는 없습니까?

곽노의: 예,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에서 2002년부터 3년간의 연구를 거쳐 ‘우수유치원 평가인증’ 지표와 운영체계를 개발하고, 2005년부터 인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NAEYC에 시행하는 것과 같이 민간전문단체가 평가인증을 신청한 유아교육기관에 대해 자체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고 평가인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유치원에 대한 평가 업무를 유치원 평가에 대한 실무 노하우가 있는 학회나 유아교육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평가인증만이 아닌 실제적인 유아교육 전문가가 조력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각 유치원의 부담과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 회: 다음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정: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성과는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2005년 시범사업시 인증을 받은 시설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선 영유아들의 활발한 놀이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증가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시설장은 인증시설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시설운영에 대한 자신감과 시설 운영의 체계성이 높아졌고, 교사에 대한 존



곽노의
서울교대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중감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역시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자부심이 향상되었다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하숙자: 저의 경험으로도 평가인증 과정에 참여하면서 전 영역에 걸쳐 운영관리와 보육계획 수립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영·유아에 대한 올바른 상호 작용이나 건강과 청결, 영양 관리, 안전 관리 등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가인증 참여가 전 영역에 걸쳐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부모들도 이러한 보육시설의 변화를 알고 있습니까?

하숙자: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의 부모님들이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자부회 참여 등으로 보육시설의 개방의 기회가 확대된 것을 매우 반가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보육 시설에 대한 신뢰감이 증진된 것으로 인식됩니다.



하숙자
자람어린이집 시설장

사 회: 평가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평가가 보육이나 유아교육기관의 다양한 특성과 자율성을 저해하지는 않는지요?

김영실: 저는 유치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안의 하나로 단위 유치원에 평가영역이나 지표 중 가중치 선택권을 주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각 유치원의 여건에서 가장 도전적인 영역이나 운영의 철학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영역을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하여 그 평가 결과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지요. 이는 지역별, 또는 단위 유치원별의 다양한 여건과 관점을 수용하면서, 부분적으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희정: 보육시설 평가지표는 시설 특성별로 나누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평가지표가 보육시설 운영의 기초가 되는 사항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표가 시설 운영의 다양성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즉, 원아 및 교사 명부가 있느냐, 보육실 환기가 잘 되고 있느냐, 교사가 영유아들과 잘 상호작용하느냐, 부엌이 청결한가, 깨지거나 하여 위험한 놀이감은 없는가, 물컵은 깨끗한가 등등입니다. 보육시설들이 지표가 제시하는 기본적인 사항들 이외에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 경우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사 회: 평가가 아무래도 기관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평가에서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유희정: 평가라는 것이 시설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담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비용 및 업무 부담이고, 다른 하나는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 부담입니다. 예를 들면 당연히 갖추고 있었어야 하는 환경이라도 미흡하여 새롭게 정비하려면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정보센터에서 평가인증 조력을 실시하고 있는데, 조력 프로그램의 활발한 운영을 위한 지원 역시 필요합니다. 호주의 경우 2년 반의 조력기간중 시설이 희망하기만 하면 다양한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조력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합니다.

하숙자: 평가인증에는 재정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시설장과 교사에 대한 평가인증 인센티브로 상반기에 지급되는 부분은 많은 교사에게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김영실: 유치원은 공립과 사립의 상이한 요구가 반영되고 다양하고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 이외에도, 실제적인 행정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교사연수 기회의 제공, 부모교육 담당자의 파견, 유아 평가를 위한 수행평가체제의 보급,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다양한 모델의 제시, 유치원 평가의 유용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별 장학지도가 평가를 위해, 언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제로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 회: 장학지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평가와 장학지도가 유치원에 이중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요? 보육시설의 경우도 지도 점검도 있는데 중복은 아닌가요?

장명림: 유치원평가와 장학지도의 기본 취지와 목적을 살리되, 각각의 강조점에 차이를 두어 평가와 장학지도가 중복되지 않고, 조화롭게 통합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학은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측면에 중점을 두고, 운영관리 부분은 유치원 평가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현재는 장학지도가 유일한 유치원 질 관리·감독 기제이므로 여기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으나, 향후 유치원 평가와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분담이 잘 되면, 개별유치원에 대한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장학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평가를 통해 유치원 개선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해당 유치원이 지원받기를 원하는 자료, 시설, 행정 및 전문적 지도 조언 등에 관한 정보를 장학지도 담당기관에 제공하면, 장학지도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근거하여 지도·조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실
원광대 유아교육과 교수

유희정: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현재는 법으로 정한 일부 기준들이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으나, 앞으로 지표 개정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 회: 평가가 피평가는 물론 평가 주체에게도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닌데,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유희정: 평가인증은 여러 면에서 보육현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영유아의 건강하게 양육될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육시설의 환경·인력·프로그램 등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보육수요자(부모)가 보육시설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세째, 보육서비스의 효과적인 질적 수준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보육시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며, 넷째, 정부의 보육정책 수립자가 보육현장 운영에 대하여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곽노의: 유치원 평가도, 유아교육기관의 질적 개선 노력의 지원, 유아교육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유아교육 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중요한 기여가 될 것입니다.

사 회: 평가결과를 공개하거나 재정지원과 연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희정: 현재는 인증 받은 보육시설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보육시설 선택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앞으로 재정지원과 연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림: 유치원의 경우 평가결과의 공개 방식 및 활용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각 유치원의 홈페이지에 공개함은 물론, 참여 유치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우수 사례 표창과 재정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 유치원에 대한 평가 결과가 해당 유치원의 질 관리와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피드백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각 유치원별 장학지도를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 회: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동일한 연령대의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면서도 매우 다른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한다는 점은 동일하고, 그 질적 수준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선택한다는 점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평가제도가 유아교육과 보육 수준을 높이는 유용한 도구로 자리 잡기 바라면서 오늘의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